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레아의 하나님

- 창세기 29장 15-35절

김태훈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구약학

## I. 들어가는 말

창세기의 많은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으로부터 많은 신앙적 교훈을 얻는다. 오늘 읽을 본문 창세기 29장 15-35절도 야곱 생애의 일부분에 대해 말씀해 준다. 29장 앞에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복을 가로챈 이야기, 벳엘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30장 이후에는 라반 집에서의 야곱의 고생, 브니엘에서의 하나님과 겨룸,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와 가족의 파란만장한 삶이 나온다.

29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1-14절은 라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15-30절은 야곱과 라반의 딸들의 결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 조상들이 되는 자식들 출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29장의 이야기 맥 역시 야곱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한 여인을 위한 야곱의 14년 헌신, 야

곱의 결혼과 태어나는 자녀들, 치사한 라반 밑에서 야곱의 고생을 우리는 읽는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 바꾸면 또 한 신앙인을 발견한다. 그녀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이다. 야곱 중심의 이야기에서 주목을 덜 받곤 하지만,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나름대로의 삶의 부침과 걱정이 있는 것처럼, 레아도 하나님의 귀한 딸로써 인생의 쓰라림과 기쁨을 겪으면서 삶을 꾸려 간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가며 깊은 신앙으로 나아간다.

우리 시각을 약간 옆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주연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레아 같이 소외된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레아를 만나러 갈 것이다. 본문의 중요구절들을 설명하고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하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문의 행간을 읽어 볼 것이다.

## II. 본문 해설

한 평범한 가정이 있었다. 그 집에는 일하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았다(29:2). 가업을 이을 아들들도 있었고 귀한 딸들도 있었다(31:1). 바쁜 일상,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부모님, 한 가족으로 삶을 나누고 있었다. 그 가정에는 두 딸이 있었다(16절). ‘암소’를 뜻하는 레아), ‘암양’을 뜻하는 라헬(창 31:38; 32:14[15]; 사 53:7; 아 6:6)이 그들이다.<sup>2)</sup>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의 딸들의 이름답다. 언니 동생은 함께 놀고 함께 일하는 자매

1) HALOT 2, 513.

2) Kenneth A. Matthews, *Genesis 11:27-50:26*, NAC (Nashville: Broadman & Halman Publishers, 2005), 467.

였다. 야곱이 오기까지는 경쟁도 차별도 없는 한 지붕 한 가족 다정한 자매였다.

#### A. 야곱과 두 자매(29:15-20)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났다(9-14절). 부지런하고, 정력적이고, 지혜 많고, 건장한 남자였다. 이 자매들의 일상과 우애는 계속될 것인가? 이 남자가 나타난 후 두 자매는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고 각각 기쁨과 슬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나뉘는 신앙을 키워 간다.

한 남자에 결혼 적령기의 두 여자!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 눈 먼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라헬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야곱이 먼저 만난 여자는 라헬이었고(10절), 라헬의 외모도 작용했던 것 같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17절). ‘약하다’는 <라코트>의 번역이다. 단수는 <라크>인데, 눈이 복수이므로 형용사도 복수 <라코트>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라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약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이 압박강을 건넌 후 그의 형 에서 앞에서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라킴>”(창 33:13절)라고 말한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뜻대로 요압을 통제할 수 없었을 때 “내가 기름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라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삼하 3:39)라고 한탄한다. 눈에 적용하면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개역성경도 레아의 시력(눈)이 ‘연약하다’로 번역한다. 안경이 없는 때라 시력이 약하면 찡그리게 되고 표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어린 다윗의 용모는 눈과 얼굴로 표현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삼상 16:12). 눈이 약하다는 뜻은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찡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잘 보이지 않으니 행동이 굼뻐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크>를 눈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잘 나오지 않으므로 시력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시력 감퇴나 시력상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로는 일반적 의미가 ‘약해짐(being weak)’ 혹은 ‘무력한(ineffective)’을 뜻하는 <카하>와, ‘무겁다’를 뜻하는 <카베드>, 그리고 어두움 <호쉐크>에서 파생한 <하샤크> 등이 있다.<sup>3)</sup> 예를 들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카하> 잘 보지 못했고(창 27:1), 야곱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 <카베드> 요셉의 두 아들을 잘 보지 못했으며(창 48:10), 시편 69편의 시인은 23절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하샤크> 보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한다(참고 전 12:3; 애 5:17).

<라크>는 ‘부드럽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들은 <라크>가 ‘부드러운’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살이 부드러운 <라크> 소를 잡아 대접한다(창 18:7).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고(잠 25:15),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잠 15:1). 신명기 28장의 저주목록 중에는 순하고 겸손고 심약한 사람마저 굶주림 가운데서 야수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55 너희 중에 온유<라크>하고 연약한<아노그>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6 또 너희 중에 온유<라크>하고 연약한<아노그> 부녀 곧 온유<아노그>하고 연약<라크>하여 자

3) ‘눈이 먼’ 것을 뜻하는 단어로는 <아와르> 혹은 <이외르>가 있다(참고 레 19:14; 21:18; 신 15:21; 27:18; 왕하 25:7; 렘 39:7; 52:11; 말 1:8).

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sup>57</sup>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신 28:55-57).

이 본문에서 <라크>는 ‘부드러운’ 혹은 ‘우아한’을 뜻하는 <아노그>(참고 렘 6:2)와 함께 나온다. 그러므로 <라크>는 <아노그>와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레아의 눈이 <라크>하다는 말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 NRS에서 발견된다. NRS는 ‘부드러운’이란 뜻을 취하여 레아의 눈이 ‘사랑스러웠다(lovely)’라고 번역한다(참고 NJB, NAB). 이렇게 보면 레아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이 된다.

마지막으로, 눈이 약하다는 말은 ‘덜 예민하다’ 혹은 ‘덜 지혜롭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다음의 구절들은 눈과 깨달음이 연결된 경우이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사 44:18).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렘 5:21).

레아는 일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좀 늦고 두루뭉술하고 여유를 남기는 타입이었을까? 야곱이 밧단아람에 도착했을 때, 언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부친의 양떼를 이끌고 있는 것도 레아의 성

품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었을 수 있다. 나중에 부친의 드라빔을 훔쳐 나온 여자도 라헬이라고 생각한다면, 레아는 라헬보다는 덜 활동적인 혹은 덜 사업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크>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본문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한다(17절). 히브리어로 읽으면 레아에 대한 설명과 라헬에 대한 설명 사이에는 접속사 <와우>가 있다. 접속사 <와우>에 동사가 붙지 않고 고유명사 <라헬>이 붙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접속사는 앞 구절과 뒤 구절을 대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 대조는 불호(不好)와 호(好)의 대조(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예쁘게 생겼다)일 수도 있지만, 내적인 특성과 외적인 특성(레아는 내면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다)의 비교일 수 있다.

라헬은 야곱이 좋아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예쁘고<여파트 토아르>(신 21:11; 예 2:7), 아리따운<여파트 마르에>(창 12:11, 16; 삼상 17:42; 삼하 14:27) 여자였다. 히브리 단어 <여파트>는 ‘아름답다’를 뜻하고 <토아르>와 <마르에>는 ‘보다’를 뜻하는 <라아>와 동근 단어들로서 용모와 관계있다. NAS는 <토아르>를 몸매(form)로, <마르에>를 얼굴(face)로 보고, 라헬은 몸매와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번역한다. NIV는 몸매가 사랑스럽고(lovely in form), 아름다웠다(beautiful)로,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했다고 번역한다. 야곱은 육체의 눈이 밝아서인지 지혜의 눈이 어두워서인지 몰라도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 여자를 고른 것이다. 29장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이 세 번 나온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18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리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2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30절).

야곱은 라반 집에 도착한 지 칠 년(18, 20)이 되었을 때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다(21절). ‘칠 년’ 동안의 노동은 고대근동의 결혼풍습과 관련 있다. 신랑가족은 신부가족에게 결혼선물을 지불해야 했다. 야곱은 자신을 도와줄 가족도 없고 라반에게 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선물비용을 날 수로 계산하여 노동을 제공했을 수 있다.

야곱의 사랑과 결혼은 야곱과 라헬뿐 아니라 레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행간에서 레아의 처지와 마음을 읽어 본다. 물론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내용이다. 야곱과 동생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결혼적령기에 이른 언니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계기도 되고 경쟁심도 생기고 낙심도 되는 그런 인생의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 야곱이 자신을 뒤로하고 라헬을 사랑함으로 칠 년 동안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동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 자신의 처지가 조금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레아가 야곱 타입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녀 역시 야곱과 결혼하고 싶어 했으며 사랑 받고 싶어 한(29:31, 32절) 보통 여자이다.

그녀는 언니가 아닌가? 그러나 야곱은 언니인 자기를 제쳐 놓고 동생하고 결혼하겠다고 야단이다.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버지도 이 문제를 깨닫고 일을 꾸민다. 야곱과 라헬이 설렘의 칠 년을 보내는 동안 레아는 부끄러움과 염려와 갈망의 칠 년을 보내었을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교가 성공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 B. 첫날밤, 그리고 레아의 고통

날이 차자 야곱은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던 그 여자를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야곱은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두 문장으로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1절). 이 두 문장에서 야곱의 급함과 대담함을 우리는 본다. 이런 방식은 어쩌면 그의 성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곱이 말한 첫 단어는 <하바>이다. <야합>의 명령형에 <아>가 붙어 있는 형태로 ‘달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다. 야곱은 ‘주시오, 내 아내! 찼소이다, 내 날이’라고 말하는데, ‘내 아내’와 ‘내 날’은 라반과 서로 주고받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말한다.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리이다.”<sup>4)</sup> <하바>와 <아보아>는 모두 <아>소리로 끝나면서 야곱의 단호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요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야곱이 급할수록 라반은 더욱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킨다.

혼인 잔치에 참석한 후(22절)<sup>5)</sup> 야곱은 기쁜 밤을 보낸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레아였다. 야곱의 반응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나타난다. 보라! 그녀는 레아<워힌네 히 레아>. 이 세 단어는 야곱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이어난 것에 대한 충격과 철저히 속은 분노를 표현한다. 라헬에게 들어가겠다고 말했는데, 레아를 들여보내다니!

야곱은 왜 레아인줄 몰랐을까? 여기서의 축제는 <미쉬테>의 번역인데,

- 4) “들어가리이다”는 <아보아> אָבוֹא의 번역이다. 미완료 단수 1인칭에 권고나 자기 결심을 나타내는(cohortative) <헤> ה가 붙어 있다.
- 5) 결혼식 때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는 결혼 잔치가 열렸다. 잔치는 칠 일간 열린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칠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운 삼십 벌과 겹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삿 14:12).”

‘마시다’를 뜻하는 <사타>와 동근 단어이다. 야곱이 술을 마셨을 것이고, 레아가 베일을 썼으며, 잘 보이지 않는 밤이었고<sup>6)</sup> 급하고 간절하여 야곱의 눈은 야곱과 에서를 혼돈한 이삭의 눈처럼 되었을 것이다. 야곱은 묻고 따지고 항의한다(25절): ‘당신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참고 창 3:14; 12:18; 20:9; 26:10), ‘왜 나를 속였습니까?’

속임 당한 야곱은 사실 그 자신도 속인 사람이 아닌가? 에서가 배고파 할 때 장자권을 산 것처럼, 사랑에 갈급하여 확인도 없이 레아와 잠을 자고 말았다. 형이 되고 싶어 아버지를 속인 동생 야곱은 형을 먼저 시집보내고 싶어 하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속아 동생 대신 형과 밤을 보내어야 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 속인 야곱은 밤이 되어 보지 못할 때 속고 말았다. 야곱이 장자권 획득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라반은 형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동네의 정상적인 관습이라고 말한다.

라반은 치사한 사람이다. 그는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라고 말하지만(14절), 생질이라도 공으로는 일할 수 없다고 하며 라헬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칠 년간 일을 시킨다(15절). 실제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은 ‘섬김 혹은 일’ <아바드>와 ‘폼샷’ <세케르>이다(29:15, 18, 20, 25, 27[두 번], 30; 30:26[세 번], 29; 31:6, 41). 라반은 동네 관습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라반의 말은 설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sup>26</sup>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sup>27</sup>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29:26-27)

6) G. Wenham, *Genesis 16-50*, WBC (Dallas: Word Books, 1994), 236.

야곱은 칠 년간 그곳에 가족으로 지냈지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 이라고 말할 때, 야곱은 가족과 그 지역사회에서 타인이 되고 만다. “우리” 속에는 야곱이 포함되지 않는다.<sup>7)</sup> 관습과 그 지역 사람들(“우리”)의 권위로 친척이긴 하지만 거래상대에 불과한 야곱을 라반은 눌러 버린다. 그리고 라헬을 데려가고 칠 년 더 봉사하라고 한다. 야곱은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28절).<sup>8)</sup>

이렇게 이야기 줄은 야곱과 라반의 반응과 대화로 이어져 가지만 문맥과 행간에서 레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첫날밤으로 돌아가 보자. 아버지의 요청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야곱에게 들어간 레이는 그 날 아침 ‘악, 레이!’ 라는 야곱의 외침을 듣는다. 놀라움이야 당연한 것일 터. 이런 일을 당할 야곱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 인격이 관계된 일이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간다. 남들이 다 듣도록 큰소리친다. ‘내가 원하는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고!’ 레이는 사랑하던 남자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남들 앞에 드러내야 했다. 야곱은 첫날 아침부터 또 칠 년 라헬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한다. 결국 야곱은 라헬과 행복의 시간을 가진다. 칠 년간 무상으로 일 해주기로 하고 말이다. 야곱과 라헬에게 해피엔딩일지 모르지만 또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 레이는 첫날밤을 치른 그날부터 수치를 안고 사는 날들을 시작해야 했다.

이렇게 레이는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자신의 첫 밤을 야곱에게 주었

7)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5), 468.

8) 일부다처제는 당시의 자식이 많아야 유리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때문이다. 형제 중에 사망한 경우에 가족을 보호하고 가계를 잇기 위한 수혼제(신 25:5-10)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처가 되기도 한다. 왕들의 경우는 다윗(삼하 5:13-16)과 솔로몬(왕상 11:1, 3)의 경우에서 보듯 결혼동맹의 일환으로 다처를 취했다.

는데,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야곱의 사려 깊은 행동을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눈에 레아는 없었다. 야곱이 라반에게 정당하냐고 따지면 따질수록 레아는 할 말이 없고 한 없이 작아져 갔다. 이렇게 레아의 아침은 사랑하던 남자에게 멸시당한 부끄러움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 C. 레아의 아픈 가슴과 하나님의 은혜(31-35절)

31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다. 레아가 언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편으로 말미암아 슬픈(32절) 가슴을 가지게 된 레아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간다. 아파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남편이 저를 귀하게 여기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레아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어진다. 29장에서 ‘여호와’는 레아와의 관계에서만 나온다. 야곱은 라헬에 관심을 두고, 라반은 노동력 확보와 딸의 혼인에 관심을 둘 뿐이지만, 레아는 여호와를 애타게 의지한다. 레아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여호와는 어느새 주어가 되어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31절). “사랑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스누아>의 번역이다. <스누아>는 ‘미워하다’ 혹은 ‘거부하다’(사 54:6; 말 1:2-3)를 뜻하는 <사나>의 단순동사의 수동분사 여성형이다. 분사형은 지속의 의미가 있다. 레아는 사랑을 덜 받은 것이 아니라 놀랍고 안타깝게도 미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를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보셨다<라아>(31절).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의 고통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라아> 밤에 라반을

책망하셨고(창 31:42),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돌아보시고<라아> 기억해 주시기를 탄원할 때,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삼상 1:11).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해도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레아를 보시고<라아> 남편 사랑 대신 자식들을 주셨다. 분명히 삶이란 사람들끼리 만들어 가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삶이란 사람들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한 여인의 아픔을 아파하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레아의 아픈 마음을 그녀의 말을 통해 들어보자. 레아가 첫 아들 르우벤(보라, 아들)을 낳은 후 말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아>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32절). 이 고백은 그녀의 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첫 단어가 여호와이다. “괴로움”, 의지할 것 없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이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 오랜 아픔, 그리고 “내 남편”<이쉬>이라 몇 번이나 부르는 데서 보는(29:32, 34; 30:15, 18, 20) 남편 사랑에 한 맺힌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야곱이 비록 라헬만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할지라도, 레아는 야곱을 “내 남편”이라 부르고 있다. 히브리 단어로는 <바알>과 <이쉬>가 있는데, <바알>은 보다 법적 관계를 말하면서 ‘주인님’과 같은 뜻이며, <이쉬>는 ‘짝’의 개념이 더 강하다. 하나님도 호색하는 이스라엘과 참된 사랑을 원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쉬>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남편]<바알리>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호 2:16).

첫 아들을 낳았음에도 레아의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둘째를 낳고 또 다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주어는 여호와이며, 여호와는 그녀가 미움받고 있는 것을 이번에는 ‘듣고’ 계셨다. 그녀는 또 아이를 낳고 마음을 쏟아 낸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

합하리라.” 여기서도 레아는 “내 남편”이라고 말하며, “지금부터는”이라고 고대하고(34절), 남편이 자신 ‘곁에 있어 주기’를(연합하기를)<라와> 소망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아가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쓸 때(32절), 남편이 곁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레아가 유다를 낳고 다시 “이제는”이라는 말을 할 때(35절), 남편은 사라진다. “내 남편”이란 말이 레아의 말 속에 더 이상 들어 있지 않다. 레아는 대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러 번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 받지 못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고 있었다. 레아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있었다. 남편 사랑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레아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 탄식하던 레아는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아들을 유다(찬양하라)라 이름 붙였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인가 거부당한 레아인가? 요셉의 어머니인가? 유다의 어머니인가? 세월이 흘러 레아는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의 할머니가 되고, 또 유다지파 다윗과 우리 주님의 할머니가 된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가?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고통 받던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레아처럼 주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나가는 말: 설교를 위한 요약과 묵상

우리는 주변에서 라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많이 본다.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한다. 그러나 레아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본 기억은 없다.

우리 아들의 중국인 친구 엄마 이름도 레이츨(라헬), 다니던 교회의 교회 학교 어린이 가운데도 라헬은 몇 있어도 레아는 없었다. 레아는 야곱에게도 또 우리 신앙인에게도 덜 주목 받는 여인이다. 교인들에게 “라헬을 좋아합니까, 레아를 좋아합니까?”라고 물으면 금방 나오는 대답은 라헬이다.

## 1. 야곱의 사랑

레아의 이야기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야곱은 칠 년간이나 라헬을 쫓아 다녔다. 얼마나 그녀가 좋았으면 그랬을까? 어째든 라헬은 야곱의 눈에 확 띄는 여자였다. 같이 자라면서야 동생 라헬의 미모는 레아에게도 자랑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언니인 레아는 갑자기 밀려 나고 말았다. 레아는 못생기고 라헬은 예쁜지, 야곱은 레아의 내면의 미보다 라헬의 외적 미를 더 사랑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아픔을 받았다.

## 2. 레아의 부끄러움

야곱의 칠 년간의 라헬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이긴 하지만, 칠 년간 레아의 고통이기도 했을 것이다. 언니 레아가 첫날밤에 라헬 대신 들 어간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략이었기 때문이다. 첫날 아침, 레아는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한다. 야곱은 결코 레아를 고려하지 않았다. 야곱은 소리쳤다. “아(보라), 레아가!” 그리고 레아를 안중에 두지 않고 라반에게 항의를 해댄다. 무슨 짓을 했냐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고, 그것도 모르냐고 라반은 또 변명한다. 레아도 괜찮은 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관습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해하라고 야곱은 한 수 더 뜬다. 이 첫날에 바로 다

시 라헬을 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한다. 레아는 이렇게 철저히 당했다. 레아는 숨을 곳을 찾고 싶었을 것이다.

### 3. 고통의 결혼생활

야곱은 라헬을 선택하고 레아에게는 슬픔을 주었다. 한 여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레아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인이 된다. 그녀는 현실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주님만이 남편의 마음을 바꿀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레아는 남편 사랑받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미움(<사나>, 개역: 총이 없음)을 받았다(31, 33절).

### 4. 신앙인

우리는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았다. 특히 그녀는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29:35)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유다는 창세기의 잠재적 주인공이다(창 49:8). 레아는 남편과 아들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레아의 생각과는 다른 좋은 것으로,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 주셨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 위로하셨고,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다윗과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5. 적용 (우리의 삶,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망이 아니라 그 분 앞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

우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도 하지만, 소외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경쟁에서 밀려 낙오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우리는 비교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갈 때도 있다. 그러나 레아처럼 아픈 가슴을 안고 나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채워 주신 분이 계신다. 그 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레아의 아픔을 보시고 계셨던 주님은 우리 모두의 간구를 보시는 분이기도 하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사실은 견디다 견디다 …) 못해 ‘쓰러질 때’도 결코 끝이 아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 계신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가면 주님은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272장).

누구나 굴곡의 삶을 산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통곡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레아는 우리 다윗과 우리 예수님의 할머니이다.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고통 중에 신앙의 어머니는 태어나고 있었다. 그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또 레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레아는 말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 김태훈 부산대학교(B.E.)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한일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다.